

# Chapter 1

보건경제학의 연구범위와 대상

# A. 보건경제학의 기초

---

일반경제학과 보건경제학의 다른 점들

## 1. 시장 참여자들간의 정보의 비대칭 (정보의 불완전성)

- 건강수준에 대한 불확실성
- 치료방법에 대한 불확실성
- 치료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 치료에 따른 비용의 불확실성

## 2. 외부성 (externalities)의 존재

보건의료에 대한 개인적 및 사회적 차원의 의사결정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파급효과 (spill-over effects)를 미칠 수 있음.

## 3. 보건의료시장에의 정부의 개입 (government intervention)

## B. 의료와 보건

---

의료(medical care)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 비용의 문제 (Costs)
- 접근성의 문제 (Accessibility)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 의료비용의 급격한 상승
- 비용상승을 억제할 최적의 방안은?
- 동시에, 의료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방안은?

## C. 국제적인 이슈 (비교분석)

---

1. OECD 회원국 가운데 GDP대비 의료비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는 ( )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의료비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는 ( )이다.
2. 미국은 평균 기대여명 (0세 혹은 60세 기준), 신생아 사망률 등의 보건지표에서 다른 나라에 비하여 우월하지 않다.
3. 1인당 GDP와 의료비 지출에는 큰 (+)의 상관관계가 있다.
4. ( )은 이용 가능한 의료기술 및 장비의 보유가 가장 많은 나라이다.

## C. 국제적인 이슈 (비교분석) (계속)

---

5. 국가 및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의료비 지출의 비중은 나라마다 현저한 차이를 나타낸다.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이태리, 스페인, 멕시코, 한국의 경우 미국에 비하여 전체 의료비 지출 가운데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6. 미국의 경우, 위의 나라들과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점은 국가 및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의료보험체계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점임.

## C. 국제적인 이슈 (비교분석) (계속)

---

OECD 국가들의 전체 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부문 지출의 비중, 2007

Country	Public Health Expenditure (%)
Canada	70.8
France	76.0
Germany	74.9
Italy	76.0
Mexico	45.9
Netherlands	63.3
Spain	71.4
Sweden	85.2
United Kingdom	82.2
Korea	55.7
United States	44.4

## D. 보건경제학의 분석도구 (연구방법론)

---

실증분석:

- 다변량 회귀분석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 자연실험 (Natural experiments)
- 무작위 실험 (Randomized Experiments)  
(ex) RAND HIE
- 정책시행 전후 여러 그룹의 효과 비교 (The “Difference in Difference” Strategy)